

수원시의회, 시·군의회 연대 강화...정례회의서 협력 모색

✎ 김승희 기자 | ⓒ 승인 2026.06.17 20:05

이재식 의장,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오른쪽 6번째)이 17일 남양주시 정약용편그라운드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83차 정례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이뉴스투데이 경기1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 발전과 공동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7일 남양주시 정약용편그라운드 유스호스텔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83차 정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간 협력 강화 방안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확대와 제도 개선, 지역 현안 대응 방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토론과 심의가 진행됐으며, 시·군의회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의장은 “경기도 시·군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정례회의는 지방의회의 공동 과제를 논의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수원특례시의회도 도내 시·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경기도 시·군의회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의회 권한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승희 기자 ehee0303@hanmail.net